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물어왔기에 이에 대해 쓰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으니 슬프지 않을 수 없네.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이 인(因)과 연(緣)에 의해서 생겨나고 일어난다는 법(法)을 체득해야 한다네.

- ① 도(道)를 따르며 자연을 법칙 삼아 소박하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
- ② 효(孝)와 제(弟)를 실천함으로써 인(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 ③ 사사로운 욕구를 이기고 예(禮)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의로운 일을 꾸준히 쌓아[集義] 호연지기를 키워나가야 한다.
- ⑤ 정명(正命)을 수행하면서 만물에 대한 자비(慈悲)를 실천해야 한다.

2. (가)의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지 않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쾌락은 선(善)이지만 모든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고통은 악이지만 모든 고통을 회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을: 선의 이데아에 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삶이다. 왜냐하면 선의 이데아는 최고의 이데아로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 것들의 원인이자 주인이기 때문이다.

(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례〉
 □ : 출발 조건
 ◇ : 판단 내용
 → : 판단 방향
 ◡ : 사상가의 입장

<보기>
 가. A: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성을 통한 행복의 추구인가?
 나. B: 자연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목적을 따라야 행복할 수 있는가?
 다. C: 정의(正義)는 부정의보다 아름다우며 얻기 쉬운 것인가?
 라. C: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이 불행한 경우는 존재할 수 없는가?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라
- ④ 가, 나, 다 ⑤ 나, 다, 라

3. 다음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각각의 도덕적 상황은 그것이 요구하는 올바른 행위의 방향이 있다. 이것에 관한 탐구가 바로 지성이다. 도덕적 실패는 기질의 허약함, 동정심의 결여, 편향된 선입견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넓은 동정심과 예민한 감수성, 동의할 수 없는 것에 직면했을 때의 끈기, 분석과 결정의 작업을 지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관심의 균형이 바로 도덕적 덕이자 탁월함이다.

- ① 현재 마주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이론도 가치를 지닌다.
- ② 탐구 정신을 발휘하기보다 기존 이론에 안주하는 것이 현명하다.
- ③ 도덕에는 목적이 없으므로 성장 자체도 도덕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 ④ 변화에 적응하는 역동적 능력인 이성을 통해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다.
- ⑤ 과학의 발달을 도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다.

4. 한국 유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기(氣)는 본래 맑음과 탁함의 구분이 있다. 일원의 기에서 음양이 나누어지고, 만 가지의 다름이 있다. 사람의 기질이 치우쳐 생긴 병통을 없애는 길은 오직 이에 밝아지는 것이다.
 을: 이(理)에는 한 글자도 더할 수 없으며 털끝만큼의 수양도 더할 필요가 없다. 성현의 말씀은 다만 기를 단속하여 기의 본연을 회복하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보기>
 가. 갑: 이(理)의 본체의 무위와 이의 작용성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나. 을: 수오지심은 구(懼)에 속하고 사양지심은 오(惡)에 속한다.
 다. 을: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고 있다.
 라. 갑과 을: 태극(太極)으로서의 이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5. 다음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너는 극작가에 의해 결정된 연극에서의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짧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짧고, 만일 길기를 바란다면 그 연극은 길다. 만일 그가 너에게 거지의 역할을 하길 원한다면 그 역할조차도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은 신의 뜻이며 너의 의무는 너에게 할당된 그 역할을 잘 연기하는 것이다.

- ①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보다 개인적 행복을 우선시 해야 한다.
- ②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자연의 필연적 법칙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
- ③ 부동심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이해해야만 한다.
- ④ 모든 감정은 부동심을 방해하므로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⑤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주어진 운명을 변화시켜야 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p>갑: 인의예지는 성(性)이고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정(情)이며, 인으로 사랑하고 의로 미워하는 것은 마음이다. 성이란 마음의 이치[理]요, 정이란 마음의 작용[用]이며, 마음이란 성정의 주인이다.</p> <p>을: 인의예지라는 이름은 이미 드러난[已發] 마음에 대해 붙인 것이며, 측은·수오·사양·시비도 성이 겉으로 드러난 덕이다. 성은 마음의 본체[體]이고 천리이며 양지(良知)이다. 양지 외에 따로 지가 존재하지 않는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보 기>

ㄱ. A: 마음이 아니라 본성이 시비 분별의 최종 근거이다.
 ㄴ. B: 마음의 일[事]을 바로잡는 것이 곧 격물(格物)이다.
 ㄷ. B: 마음과 이치는 본래 하나이므로 둘로 나눌 수 없다.
 ㄹ. C: 마음의 본체를 사물에 실현해야 사물이 이치를 얻게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사회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정부가 낡은 병에 지폐를 채워 폐광에 묻고 자유방임의 원리에 입각해 기업들로 하여금 그 지폐를 다시 파내게 한다면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p> <p>을: 경제적 자유주의는 경쟁보다 더 열등한 방법들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을 반대한다. 경쟁은 우리의 행위들이 서로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p> <p>병: 경쟁 대신 연합이 필요하다.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가 들어서서 공산 사회에서는 계급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범례> →: 비판의 방향 A~F: 비판의 내용</p> <p><예시>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div>

- ① A: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는 정당함을 간과한다.
 ② B와 D: 정부는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막아야 함을 간과한다.
 ③ C: 생산 수단을 모두 공유해야 인간의 자유가 실현됨을 간과한다.
 ④ E: 계획 경제로 인해 인간이 자유를 잃고 노예로 전락됨을 간과한다.
 ⑤ F: 유효 수요의 창출을 통해 정부 실패를 극복해야 함을 간과한다.

8. 갑, 을은 근대 한국 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과

갑:	내가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써 후천(後天)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만생을 건지려 하노라.
을:	내가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나 학인즉 동학(東學)이다.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뉘었으니 서를 어찌 동이라 이르며 동을 어찌 서라고 이르겠는가?

- ① 인간은 평등하므로 신분제도와 남녀 차별을 철폐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현세에서 사랑이 넘치는 지상 낙원을 실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③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체 서양의 종교를 배척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일원상의 진리에 우주의 근본 원리가 깃들어 있음을 간과한다.
 ⑤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도가 사상을 받아들여야 함을 간과한다.

9. 다음은 현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외부에 의한 억압이나 타인 때문에 어떤 영역이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축소될 때 우리는 강제당하거나 노예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적인 영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억압할 수 있는 주인이 존재한다면 종속당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움츠러드는 노예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 없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 기>

ㄱ. 갑: 애국심은 동일한 과거를 기억하는 민족적 전통에 근거한다.
 ㄴ. 갑: 자유는 시민적 자유 내지는 사회적 자유를 의미한다.
 ㄷ. 을: 동료 시민에 대한 자발적이고 대승적인 사랑이 애국이다.
 ㄹ. 갑과 을: 국가의 간섭과 개별 시민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범은 다른 동물을 해치지 않을 수 없다. 범을 집행하는 자가 법률로 범을 죽이고자 논의하지 않는 것은 범의 행동이 마음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와 달리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은 공이 되고 악은 죄가 된다.

<보 기>

ㄱ. 인의예지의 사단은 측은지심을 실천하면서 도달되는 것이다.
 ㄴ. 피치자들의 협의로 통치자를 교체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ㄷ. 수확한 작물은 각 백성의 노동량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ㄹ. 욕망이 없으면 인간은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존재하는 것은 모두 각자의 좋음을 추구한다. 인간에게 있어 좋음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고, 여러 탁월성 중에서 최상의 탁월성을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

—<보 기>—

ㄱ.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선(善)은 존재하지 않는다.
 ㄴ. 품성적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반하여 생기는 것이다.
 ㄷ.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간을 직접 겨냥하기보다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려고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갑: 통치자가 피치자의 자유, 생명, 자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의 저항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을: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소유도 지배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없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의 공포라는 정념과 평화 추구의 이성에 있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면 보복할 수 있으며, ㉡ 국가의 기본이 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반면에 을은 ㉢ 계약 당사자인 주권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다고 보며, ㉣ 주권자는 국민의 힘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개인은 사회 계약의 성립 이전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행복의 이념을 위해 나의 현재와 모든 미래 상태에서의 안녕의 절대적 전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자는 여기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의욕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질 수 없다.

- ①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칭찬받을만한 행위가 될 수 없다.
 ② 선의지는 자연적인 지성에 내재해 있으며, 단지 계발될 필요만 있다.
 ③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에는 도덕적 가치가 존재할 수 없다.
 ④ 실천 이성을 가진 존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⑤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에게 도덕의 원리는 자율의 원리가 아니다.

14.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반대할 수 없다. 이성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 뿐이다.

을: 산술과 기하학이 다른 학문들보다 더 확실하다. 이 두 학문은 순수하고 단순한 대상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을 전혀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갑: 도덕적 선(善)의 감정은 판단자의 개별적 이익에 기인한다.
 ② 갑: 덕(德)의 식별은 이성을 통한 관념들의 비교에 의존한다.
 ③ 을: 인간의 육체는 소멸될 수 있지만 영혼은 불멸(不滅)한다.
 ④ 을: 생각하기를 멈추어도 내가 존재하는 것의 확실성은 여전하다.
 ⑤ 갑과 을: 인간은 이성을 통해 사실 관계의 파악을 할 수 없다.

1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삶[生]도 바라고 의(義)도 바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없으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현자(賢者)는 인의의 본심을 잃지 않을 뿐이다.

을: 굽은 나무는 도지개를 대고 불에 쪼면 곧게 펴지며, 무딘 쇠붙이는 숫돌에 갈고 난 뒤 날카로워진다. 사람의 본성도 악하니 스승의 가르침[師法]이 있어야 바르게 된다.

- ① 갑: 모든 노동자는 항산 없는 상태로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
 ② 갑: 누구나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능력인 양지를 지닌다.
 ③ 을: 인위적인 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본성에 반하는 해로운 것이다.
 ④ 을: 국가와 사람의 수명은 모두 하늘이 아닌 예에 달려 있다.
 ⑤ 갑과 을: 모든 사람의 본성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운동 상태에 있는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고는 운동 상태에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무한히 원인을 소급해 올라갈 수는 없으므로 이로부터 신의 존재가 증명된다.
 을: 최초의 악한 의지는 신의 뜻을 따르지 않은 인간의 타락한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인가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최초의 축복을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도 거두지 않으셨다.

- ① 갑: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② 갑: 신의 존재는 이성이 아니라 신의 계시에 의해서만 증명된다.
- ③ 을: 지혜, 용기, 절제는 완전한 행복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한다.
- ④ 을: 인간은 자신보다 하위에 있는 것들을 향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 ⑤ 갑, 을: 악(惡)은 선(善)과 달리 신이 창조하지 않은 실체이다.

17.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인간은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회피하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다.
 을: 이것이 될까 저것이 될까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 ① 갑: 주관적 진리와 주체성이 없으면 진정한 실존은 불가능하다.
- ② 갑: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살아갈 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③ 을: 인간이 가진 책임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만 대한 것이다.
- ④ 을: 인간만이 실존이 자신의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이다.
- ⑤ 갑과 을: 신을 모든 것을 내재적 원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1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순임금은 무위로 다스린 분이다. 자신을 공손히 하고, 현능한 이들에게 국정을 맡겼을 뿐이다. 덕으로 다스림은 마치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지만 못별들이 그것을 향하는 것과 같다.
 을: 자기의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 작용을 버린다면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보 기>—

ㄱ. 갑: 통치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없이 대해야 한다.
 ㄴ. 을: 성인은 지식을 재앙의 근원으로, 인의를 교제 수단으로 여긴다.
 ㄷ. 을: 만물의 근원인 도에 따라야만 덕이 자연스럽게 함양된다.
 ㄹ. 갑과 을: 나를 극복하여 예를 회복하는 수양을 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9. (가)의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p>갑: 근기가 작은 사람이라도 단박에 깨치는 가르침[頓敎]을 듣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해[正見]를 일으키면 깨우친다. 을: 근래에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돈오(頓悟)하였다고 생각하여 교학을 말하는 것을 멸시하여, 비웃음을 사니 모두 안팎으로 겸학[內外兼全]하지 않은 잘못이다.</p>
(나)	<p>〈법례〉 → : 비판의 방향 A, B : 비판의 내용</p> <p>〈예시〉 (갑) → A → (을) A는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임.</p>

- ① A: 이심전심(以心傳心)이 중생의 해탈에 필수적임을 간과한다.
- ② A: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自性]을 형성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A: 일체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불변하는 성질을 가짐을 간과한다.
- ④ B: 일체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간과한다.
- ⑤ B: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대중의 해탈을 위해 힘써야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민주적 과정이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후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자유 경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문자 의미대로 국민이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을: 민주적 절차나 정치적 공론장들의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담론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합의된 내용은 모두가 수용해야 한다.

- ① 갑: 정치인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 ② 갑: 당선된 정치인의 국정 활동에 시민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을: 공론장의 심의 내용을 고려한 정책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 ④ 을: 담론 참여자 다수가 동의하면 보편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
- ⑤ 갑과 을: 시민 모두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 문제지의 저작권은 Unkicetic에게 있습니다.